

장갑 밀려들어 팔목골절 사고 발생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타이어 선별 라인, 비상정지 방법 없어



▲ 타이어 이송용 컨베이어의 모습

지난 2월 13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에게 손가락 신경 손상 및 팔목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타이어 선별 작업을 하던 재해자는, 타이어가 컨베이어 이송 도중 걸려버리자 해당 장소에 가서 직접 타이어를 제거했다.

이후 재해자는 타이어가 걸



▲ 한쪽으로 치우친 가이드 롤러를 원위치 시키던 중 새끼손가락 쪽 장갑이 밀려들어감

리면서 위치가 어긋난 가이드 롤러(우측 그림)를 평소대로 수작업으로 원위치 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새끼손가락 쪽 장갑이 회전체에 밀려들었다.

그 결과 오른손 새끼손가락 신경이 손상되고, 팔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공정엔, 비슷한 시기에 설치한 다른 라인과 달리 비상정지 로프조차 없었다. 결국 비명을 들은 다른

야 했다.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하여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정은 컨베이어 에러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자가 직접 기계를 멈출 방법이 없는 곳이었다.

지회는 사측에 비상정지 로프, 비상정지 버튼 등을 설치하고, 현장의 안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가이드 롤러